

골프장 개발의 선행원칙

탁 성 호

경기도 안성의 어느 농촌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곳은 산과 논밭, 그리고 개울이 함께 어우러져 평안함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마을이었다. 게다가 도시처럼 올가미에 묶여 있지도 않고 또한 낯선사람을 보아도 짓기는 커녕 꼬리를 흔드는 큰 바둑이의 모습을 통해서도 친근함을 금방 느낄 수 있는 마을이었다.

그런데, 평안함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 환경과는 달리, 마을의 청년회 사무실에서는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고향에 골프장이 건설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과 반발심이 사무실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마을의 청년조직의 활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활발하였다. 청년회는 골프장의 건설을 둘러싼 주민간의 이해 대립을 조정하기 보다는, 환경보전차원에서 접근하여 자체토론회의 개최와 강사를 초빙한 강연회의 개최를 통하여 골프장의 건설 그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하였다.

골프장의 건설에 대하여 청년회가 반대하는 주된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골프장의 건설로 인한 고유 경관의 훼손은 차치하고라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골프장에 살포되는 제초제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며 이로 인하여 개울은 황폐화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유층을 주대상으로 한 사치성 향락장이 들어서면 경우 지역

주민과 이용자와의 위화감이 조성되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에도 해롭다는 것이다.

청년회의 이와 같은 반대논리에 대하여 필자 역시 같은 생각이다. 선진국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골프장이 공원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한 일반 인식은 일부 특수층을 위한 여가장소로서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스포츠 장소로서의 긍정적인 것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골프의 대중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골프장의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개발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기본전제이다.

다음으로, 골프장의 개발이익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는 개발이익의 주민수혜원칙과 부합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을 무상 내지는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일반 회원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골프장의 개발자 및 타지역 회원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특수 부유층을 위한 사치성 향락장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불식될 것이다.

(본회 회원)

“八角亭”은 會員여러분과 讀者여러분의 쉼터요. 討論場이다.

自然을 畏敬하고 사랑하는 뜻있는 이의 거리낌없는 所信, 所懷, 提言, 建議의 글월을 기다린다.

200字 原稿紙 5매내지 10매 範圍內에서 玉稿를 정리, 送付하시기를...